



12면

전주,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

# 전주매일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음 2월 14일) 제297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정부 출범, 대응체계 가동

전북도, 지역 공약·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토록 정책추진단 구성

전북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공약과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새 정부 국정 과제화 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등 도정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단은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공약 관련 분과장은 실·국장이 맡는다.

분과는 새만금·SOC, 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생태문명 등 4개로 구성하며 교수, 전문가, 전북연구원,

국책 연구기관, 출연기관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인수위 구성과 공약 반영 동향을 파악하고, 인수위 주요 인사와 소통창구 확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도 공약이 정부 정책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역점을 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

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윌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 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 6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 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전북도 공약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의 투표 퍼포먼스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관계자들이 15일 전주시청 노승광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우수'

3년 연속 최고등급에 올라  
공공기관들과 협업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등 대응 주요



기지에서 감상하는 혁신도시 야경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계획수립은 물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한, 도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함께 구축한 협업체계를 중심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추진과제의 이행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춘 결과, 특화발전을 비롯해 상생발전, 정주여건 등 우수사업(사례)에서도 2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북도가 그동안 시·군,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상생협의회의와 실무협의 등 협업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추진과제 발굴을 통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우수사례 발굴·이행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전북도는 기관표창(국토교통부장관)과 공무원 개인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며,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주어질 예정이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호협력하는 관계 속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 소통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혁신도시가 전북발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명품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한옥마을·고사동, ICT기반 '스마트 쇼핑거리'로

문체부 쇼핑관광 공모 선정... 전북도, 활성화 추진  
웹 기반 쇼핑관광 개별서비스 구축... 12월 본격화  
목적지까지 3D 지도 활용 최적의 길 찾기도 제공

전북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과 고사동 일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쇼핑거리'로 탈바꿈한다.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쇼핑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주 한옥마을과 고사동 쇼핑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전북형 스마트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광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도와 재단 전주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맞춤형 서비스 콘

텐츠 발굴 참여 사업자(컨소시엄) 선정 등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쇼핑거리에 웹 기반의 쇼핑관광 개별서비스를 구축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기반이 구축되면, 전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스마트폰 플랫폼(www.kstppas.com)을 통해 다양한 쇼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가상현실(VR)로 매장을 살펴보고 원하는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AR)을 활용해 옷과 액세서리, 귀금속 등을 가상으로 차

용해 보고 고를 수 있다. 구매한 상품은 가게에서 보관반만 아니라,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상점과 맛집, 관광지 등을 소개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3D 지도를 활용한 최적의 길 찾기도 제공된다. 외국인들도 언어 소통에 따른 불편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언어를 지원한다.

유통육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전북도, 전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쇼핑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언어와 정보 활용의 어려움 등을 보완해 전북 관광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심진강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IMSIL-GUN  
임실군